



주식선물 개인 투자자를 주목!

What's new

- 외국인 투자자의 선물 매매에 대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지 궁금증 많은 상황
- 또한 국내 시장 보다 해외 시장이 요즘은 변동성도 더 크고 매력적인 현 상황

Our view

- 지수가 상승했음에도 1분기간 일간 변동성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중국 시장이 우리 시장 보다는 더욱 Hot 한 시장. 현 상태에서 투자 제한이 사라진다면 시장의 중심축 이동 가능
- 당장 국내시장은 개인 투자자의 주식선물 매매에 주목할 필요 존재
- 최근 지수 급락시 대규모 매수를 통해 시장 반등에 배팅하는 과감한 모습 확인됨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외국인 투자자

- 외국인 투자자의 선물 매매 방향성과 관련된 궁금증 많은 상황
- 하지만 지그재그 패턴과 미결제약정 제한을 볼 때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
- 지속적인 방향성과 미결제약정 증가 라는 두가지 모습이 모두 나타나야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최근 가장 Hot 한 시장은?

- 1분기 간의 일간 변동성으로 계산시 중국 상해 시장이 요즘 가장 Hot 한 시장
- 지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상승하는 전형적인 변동성 장세가 나타나는 것
- 현 상태에서 중국 투자의 제약이 사라진다면 시장의 중심축 이동할 가능성도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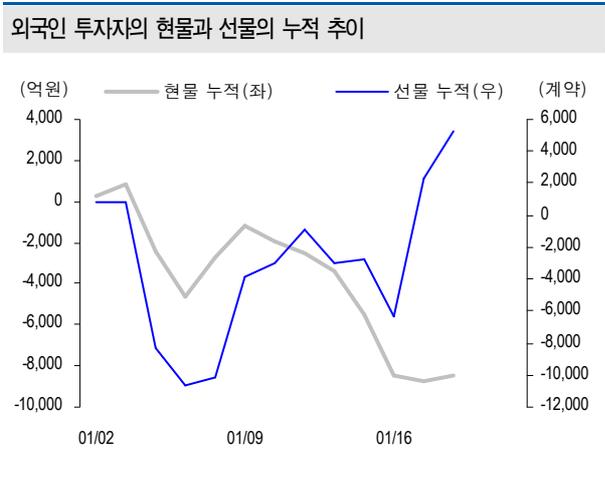
개인 투자자의 주식선물 추이를 주목!

- 단기 하락기에 개인 투자자의 주식선물 누적 추이는 대규모 순매수
- 시장의 반등에 대한 기대를 그대로 내포한 모습으로 차후 시장의 방향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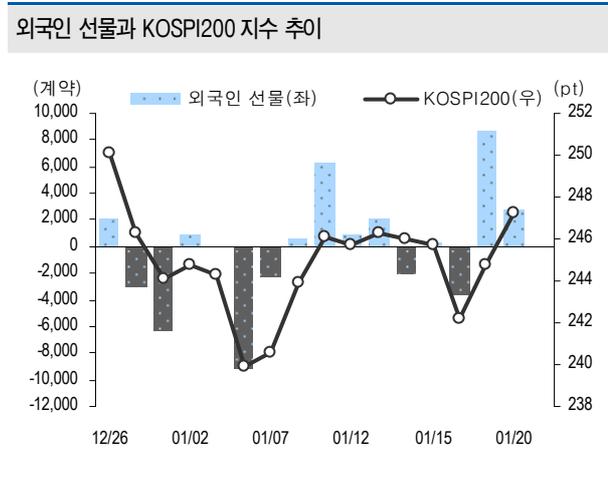
선물옵션 투자전략

외국인 선물매매에 의미를 부여하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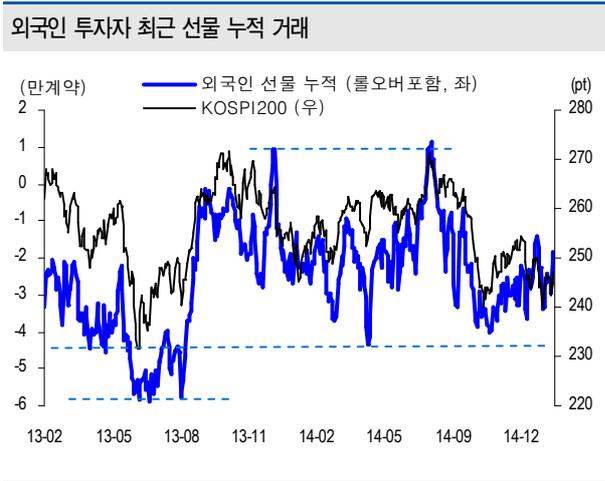
외국인 투자자의 선물매매가 변덕스럽다. 요즘 많은 투자자들이 궁금해 하는건 외국인 투자자의 선물 매매에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일간으로 수천계약을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를 반복하는 모양새나, 2~3일 간 1만 계약 이상 매수/매도 하기도 하는 등 일견 매우 큰 규모의 포지션을 변동시키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일에도 외국인 선물은 4,000계약 가량을 순매수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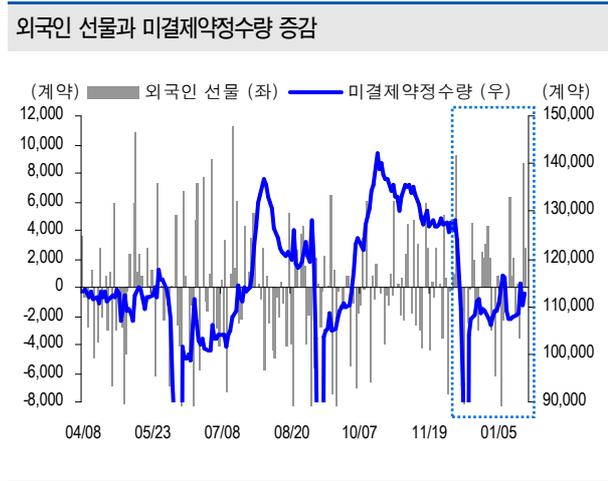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선물옵션 투자전략

게다가 일부 투자자들은 외국인 투자자의 매매 패턴을 현물과 연결시켜 관찰하기도 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현물 순매수가 일정 수준이 되지 못하기에 외국인 투자자가 선물을 활용한 무엇인가 연계 플레이를 수행하고 있을 것 같다는 추정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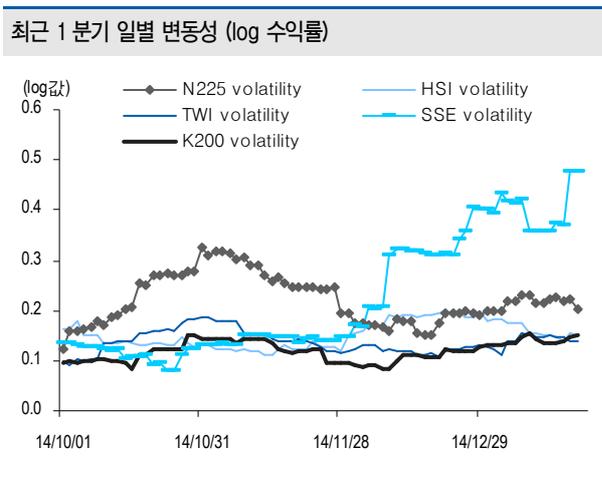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외국인 투자자의 선물매매에 의미를 부여하긴 아직 이르다. 첫째는 전체적으로 수천계약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방향성이 없다는 점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의미 있는 모습은 수천계약의 매수 혹은 매도가 몇일 동안 지속되며 전체적인 시장의 구조를 바꾸는데 있다. 하지만 최근의 모습은 이러한 시장 변화와는 거리가 먼 지그재그식 매매가 대부분이다.

둘째는 미결제약정의 변화가 없다. 실제로 포지션이 의미가 있기 위해선 지수 선물의 미결제약정이 일정한 방향성을 갖아야 한다. 지수 상승시에 외국인 매수가 누적되며 미결제약정이 증가해야 진정한 방향성(상승) 배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요즘 모습은 이와는 거리가 멀다. 외국인 선물 매매가 방향성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는 일순간의 미결제약정 증감을 보여줄 뿐이다. 즉, 추세적인 미결제약정 증감은 동시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결국 외국인 투자자의 매매에 의미를 부여하려면 상기와 같은 두가지 1) 방향성이 명확히 형성된 상태에서 2) 미결제약정의 증가를 동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야 한다는 판단이다.

최근 Hot 한 시장?

오히려 최근 시장의 변동성을 볼 땐 국내 시장보다 인접국가의 시장이 더욱 변동성 큰 상황이다.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선물옵션 투자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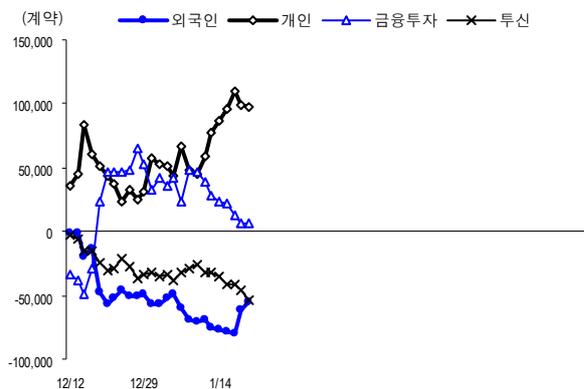
대표적으로 중국시장(SSE) 경우 1분기 동안 일간 변동성이 연간 기준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며, 일본(N225)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국내 시장(K200)이 소폭 작년 말 대비 반등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이 수준 역시 대만(TWI)의 변동성이나 홍콩(HSI) 변동성과 유사한 수준이어서 상대적인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고 하긴 어렵다.

최근의 VKOSPI 변동성지수가 13~14%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 맴돌고 있는 것을 보아도 이러한 국내 시장의 낮은 변동성은 큰 매력이 있는 상황은 아닐 것이다. 더불어 지금과 같은 극단적으로 낮은 변동성 상황에서는 시장의 방향성이 상승이든 하락이든 상관없이 추세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때 변동성이 상승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된다. 대표적으로 중국 상해지수를 보면 시장이 크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다.

개별선물의 개인 투자자를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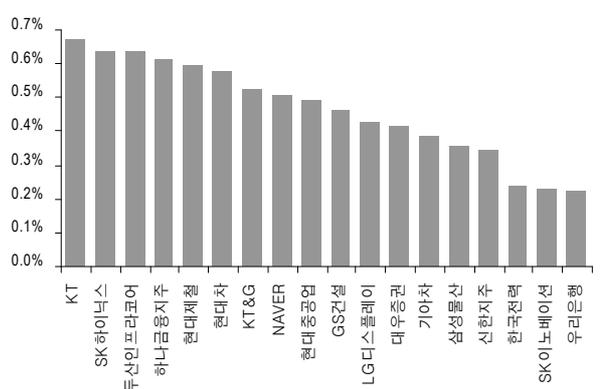
오히려 최근 몇일간 증가한 개인 투자자의 주식선물 매수를 주목한다. 지수가 급락하는 시기에 자신감 있게 주식선물을 매수하는 모습과 함께 지수가 하루~이틀 반등하자 바로 비중을 줄이는 모습이 소폭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다시 이야기하면 국내 지수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대세 상승 보다는 제한적인 박스권을 나타낸다는 것이며, 또한 시장의 움직임에 대한 투자자의 대응에 있어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다수 동조하고 있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이란 판단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개인 투자자의 주식선물 매매 추이도 무시할 수 없는 지표가 된다.

개별 주식선물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 주목!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식선물 괴리율 추이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선물옵션 투자전략

과거 개인투자자들의 ELW 를 매매할 때도 지수 하락시 CALL ELW 매수 후 지수 상승시 청산하거나 지수 상승시 PUT ELW 를 매수하던 전략을 최근 개별선물의 개인투자자 매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이런 매매는 레버리지 ETF 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던 현상으로 지수 급락시 인버스 (Inverse) ETF 보다 레버리지(Leverage) ETF 에 더 많은 매수가 있었던 개인 투자자의 전략 과도 일맥상통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저점매수 고점매도의 전형적인 박스권 매매를 지속 하고 있는 것이다.